

# 일본 경제 동향\_2015년 7월

## (TPA 법안 통과 후 미일 TPP 교섭)

###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회복세 주춤	2
2. 무역적자 크게 축소	6
3. 엔저·고주가·고금리 지속	10
4.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유지	12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3
1. TPA 법안 통과 후 미일 TPP 교섭	13
2. 경제·재정 재생계획	15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7
1. 대일 무역적자 3개월 만에 확대	17
2. 일본인 직접투자 급증 반전	20
V. 참고 자료	21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1
2. 주요 경제 일정	23

###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4			2015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1.0	109.0	-
GDP증가율(연율,%)	1.6	△0.1	△6.8	△2.0	1.2	3.9(p)	-	-	-	-
국내투자	66.0	69.5	16.3	17.7	16.2	20.4	-	-	-	-
민간설비투자	23.0	24.5	4.2	5.2	7.3	7.2	-	-	-	-
공공투자	13.2	12.6	2.0	2.1	4.9	3.5	-	1.0	2.1	-
해외직접투자(조엔)	0.4	2.6	2.3	0.3	△0.1	△0.3	-	0.3	0.2	-
소비자물가	0.4	2.6	3.3	3.2	2.7	2.1	-	0.3	0.1	-
전기비	4.0	3.6	3.6	3.6	3.5	3.5	-	3.3	3.3	-
상승율(%)	69.8	73.1	17.6	18.3	19.8	18.9	18.8	6.6	5.7	6.5
실업율(%)	81.3	85.9	20.2	21.2	22.1	20.4	19.1	6.6	6.0	6.6
수출(조엔)	△11.5	△12.8	△2.6	△2.9	△2.3	△1.4	△0.3	△0.1	△0.2	△0.1
수입(조엔)	3.3	2.6	0.3	1.7	1.4	4.2	-	1.3	1.9	-
무역수지(조엔)	97.7	105.8	102.1	104.0	114.3	119.1	121.4	119.6	120.7	123.8
경상수지(조엔)	1,123	996	1,008.2	987.3	950	923.3	904.7	911	905	899
환율	0.72	0.55	0.60	0.53	0.44	0.34	0.40	0.33	0.41	0.47
달러	13,651	15,460	14,655	15,562	16,660	18,226	20,058	19,768	19,974	20,404
원화(100엔)										
금리(10년물,%)										
주가(닛케이)										

주: (p)는 2차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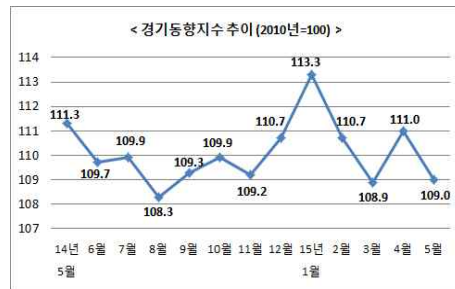
- (경기판단) 경기회복세 주춤
  - '15.5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9.0으로 전월비 2.0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
  - '15.5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
- (무역수지) 무역수지 690억 엔 적자로 전월대비 적자폭 축소
  - '15.6월 수출은 6조 5,057억 엔, 수입은 6조 5,748억 엔
- (환율) 엔저 가속
  - '15.6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23.8 엔으로 전월비 2.6% 엔저
    - \* '15.6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899원으로 전월대비 0.7% 엔저·원고

##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 1. 경기회복세 주춤

#### □ (경기기조 판단)

- 설비투자자와 임금소득은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이 일시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세가 주춤
  - 7월 6일 일본내각부가 발표한 5월 경기동향지수에 의하면 경기현황을 나타내는 일치지수가 109.0으로 전월비 2.0p 저하, 2개월 만에 악화
  - 경기동향지수 관련 11개 지표 중 내구소비재출하지수와 광공업생산출하지수 등 9개 지표가 마이너스를 보인 외에 광공업생산지수와 상업판매액도 부진
- 6월 경기위치조사에서도 현상판단지수(3개월 전부터 경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 : DI)가 전월보다 2.3p 하락, 2개월 연속 경기악화
  - 원재료와 신변용품의 가격상승에 더하여 그리스 금융 사태에 따른 추가하락·엔고에 대한 우려가 배경
- 다만 경기동향지수보다 뒤늦게 발표한 7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일본 내각부의 기조 판단은 개인소비와 투자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들어, 3개월 연속 완만한 회복으로 고정



자료 : 내각부

#### □ (전 망)

- 각종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조만간 다시 완만한 회복세를 되찾을 전망
  -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안에 따른 수출부진, 대내적으로는 엔저와 기후불순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이에 따른 소비부진 등의 위험도 잔존

## <GDP>

#### □ '15.1분기 고정장에서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 전망

- '15.1분기 실질 GDP성장율은 전기비 1.0%, 연율 환산으로는 3.9%의 고성장을 시현
  - 소비세를 인상 후 침체된 개인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외에, 특히 기업수익의 개선 등에 따른 설비투자의 활성화, 주택투자의 플러스 반전 등이 고성장에 기여
- 그러나 2분기에는 수출과 생산의 약세에 더하여 개인소비가 침체를 보이고 있어 GDP성장율이 마이너스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
  - 미즈호종합연구소 전망에 따르면 2분기 GDP성장율은 1분기 고성장의 반작용도 있어 전기비 -0.3%, 연율 -1.3%
  - 아시아태평양연구소도 가장 최근 전망에서 2분기 GDP성장율을 전기비 -0.2%, 연율 -0.8%로 예측
- 그러나 점차 일본경제는 다시 완만한 회복세를 되찾아 2015년 전체로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전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할 전망
  - 2015년에는 엔저기조의 정착에 의한 수출환경 개선과 유가하락의 영향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최소한 플러스 성장은 가능할 전망
  - 일본 내각부의 시산에 의하면, 2015년도의 실질 GDP성장율은 1.5% 정도
  - 다만,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안에 따른 수출부진, 대내적으로는 엔저와 기후불순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이에 따른 소비부진 등의 위험도 있음

####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p)
전기비			1.1	△1.7	△0.5	<b>0.3</b>	<b>1.0</b>
전기비연율	1.6	△0.1	<b>4.4</b>	<b>△6.8</b>	<b>△2.0</b>	<b>1.2</b>	<b>3.9</b>
전년동기비			2.4	△0.4	△1.4	△1.0	△0.9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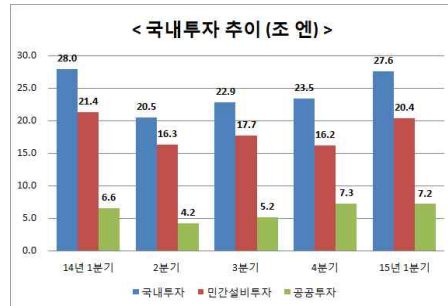
## <국내 투자>

### □ '15.1분기 국내투자 호조로 고성장을 견인

- '15.1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는 전기비 실질 1.6% 증가, 명목기준으로는 17.3% 증가

### □ (민간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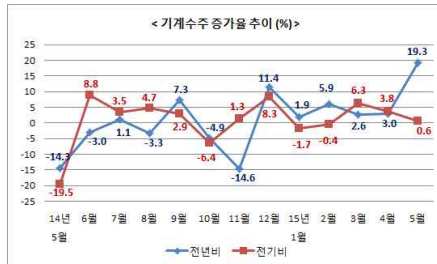
- '15.1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6.1% 증가한 20.4조 엔, 국내 투자의 74.1%를 차지
- 7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일본 내각부는 투자에 대한 기조판단을 전월과 같은 회복으로 유지



자료 : 내각부

- 앞으로도 당분간은 엔저기조의 정착, 유가 하락 등을 배경으로 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생산 및 기업수익 회복 등에 의해 투자의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

- '15.5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0.6% 증가
- 엔저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기업의 유턴에 의한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 (공공투자)

- '15.1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4% 감소한 7.2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5.9%를 차지
- '15.1분기의 공공투자가 감소한데 이어 5월의 공공공사 수주액과 6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도 크게 줄고 있어(각각 전년동월비 28.7% 감소, 1.8% 감소)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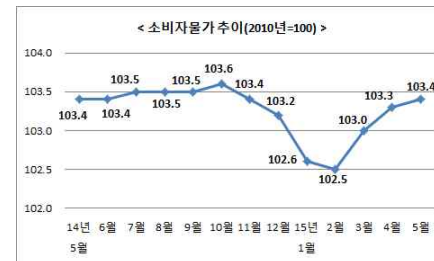
### □ '15.5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

- '15.5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3.4로 전월비 0.2% 상승,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유가하락의 억제요인에도 불구하고, 생선·식품 외에 커피와 숙박요금 등의 상승이 물가상승에 기여
-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 상승했으나 5월부터는 소비세인상의 영향이 완전 해소됨
- 앞으로 당분간은 엔저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나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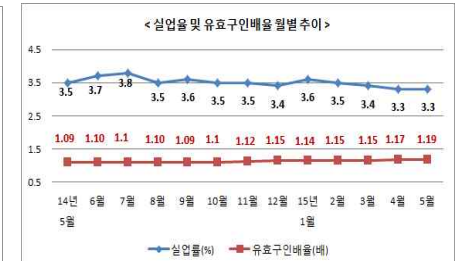
## <실업률>

### □ 고용의 안정세 유지

- '15.5월 완전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3%를 유지
- 15~24세 청년층의 완전실업률은 5.5%로 전월보다 0.5%p 상승, 청년실업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15.5월 유효구인배율은 23년 2개월만의 최고수준인 1.19배로 전월보다 0.02p 상승
- 의료·복지 관련 신규 구인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구직자 수는 감소하여 건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손 부족현상이 계속되면서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 2. 무역적자 크게 축소

### □ (종 합)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축소

- '15.6월 무역수지는 690억 엔 적자로 전월보다 적자폭이 1,481억 엔 축소
  - 전월대비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3,816억 엔에서 4,118억 엔으로 확대된 반면,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4,037억 엔에서 5,788억 엔으로 대폭 확대
-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 등을 배경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축소
- 향후 수출의 회복에 따라 무역적자는 축소될 것이나 유가 동향이 불투명한 요인
  - 그러나 엔저 지속에 따른 수입비용 상승 및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물량의 증가 가능성 등에 비추어, 무역수지의 흑자전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
- 한편, 2015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1조 7,251억 엔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5조 9,031억 엔 축소
  - 유가하락이 크게 기여
  -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년동기의 2조 9,273억 엔에서 2조 9,587억 엔으로 약간 확대된 반면, 對미국 흑자는 전년동기의 2조 7,828억 엔에서 3조 4,088억 엔으로 크게 축소

< 2015년 6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5.5월			2015.6월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5.7	2.4	-12.4	6.5	9.5	13.3	37.8	7.9
수 입	6.0	-8.7	-9.1	6.6	-2.9	10.4	39.5	-7.4
수 지	-0.2	-76.5	100.0	-0.1	-91.7	-68.2	-1.7	-77.4

자료 : 재무성

### □ (수 출) '15.6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전월대비 크게 증가 반전

- '15.6월 수출은 6조 5,057억 엔으로 전월비 13.3% 증가, 전월의 -12.4%에서 크게 반전
  - 전년동월대비로는 9.5% 증가
  - 수출물량도 전월비 10.0%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0.1% 증가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부품, 원동기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플라스틱 대신에 원동기가 포함된 가운데, 5대 품목 모두 전월비 수출이 증가
  -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져, 각각 41.4%, 13.8% 증가
    - \* 특히 자동차의 對미국 수출이 호조, 전월비 45.2% 증가

< 2015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엔, %) >

순위	품목	2015.5월			2015.6월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7,613	0.2	-22.2	10,762	16.9	41.4	56,425	9.6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190	11.8	-3.3	3,334	14.9	4.5	19,285	14.0
2	철강	3,031	-6.7	-5.9	3,063	-8.0	1.1	19,546	0.7
4	자동차부품	2,537	-1.7	-19.8	2,887	2.4	13.8	17,131	2.3
5	원동기	1,933	-0.3	-19.1	2,148	3.7	11.1	13,205	6.1

자료 : 재무성

- 주요 수출상대 지역·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 수출이 증가
  - 對미국 수출 증가폭이 19.9%로 가장 크고, 이어 ASEAN, EU, 한국, 대만, 중국 순으로 수출 증가폭이 큼
  - 對한국 수출은 10.5% 증가
- 한편, 2015년 상반기 수출은 37조 8,080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7.9% 증가
  - 품목별로는 반도체 전자부품의 수출증가율이 14.0%로 가장 높고, 이어 자동차, 원동기, 자동차부품, 철강 순

- 주요 지역·국가별로는 모두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對미국 수출증가율이 16.6%로 가장 높고, 이어 ASEAN, 대만, EU, 한국, 중국 순

< 2015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엔, %) >

순위	국가	2015.5월			2015.6월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0,861	7.4	-20.3	13,025	17.6	19.9	75,366	16.6
2	중국	10,607	1.1	-5.4	11,602	5.9	4.3	64,731	2.2
3	ASEAN	8,752	2.3	-12.3	9,718	7.8	11.0	58,659	10.9
4	EU	6,022	0.4	-5.8	6,655	10.8	10.5	38,894	5.1
5	한국	4,185	-0.7	-12.9	4,624	9.5	10.5	27,778	4.5
6	대만	3,703	9.5	0.7	4,021	14.8	8.6	22,256	8.1

자료 : 일본 재무성

#### □ (수 입) '15.6월 수입도 전월대비 증가 반전

- '15.6월 수입은 6조 5,748억 엔으로 전월비 10.4% 증가, 전년동월비로는 2.9% 감소
  - 수입물량도 전월비 8.5% 증가, 전년동월비로는 1.4% 감소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반도체 등 전자부품, 의약품, 의류·동부속품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통신기 대신에 의류·동부속품이 포함된 가운데, 모두 수입이 증가
  - 5대 품목 모두 전월의 수입 감소에서 수입증가로 반전된 것은 유가하락의 영향이 해소된 대신, 엔저와 부분적인 경기회복을 반영한 것임

< 2015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엔, %) >

순위	품목	2015.5월			2015.6월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6,455	-31.7	-11.7	6,731	-36.7	4.3	41,847	-42.5
2	액화천연가스	3,154	-44.1	-24.8	3,665	-37.3	16.2	31,403	-19.6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2,196	0.6	-10.9	2,534	9.3	15.4	14,934	5.3
4	의약품	2,014	8.1	-16.8	2,347	33.8	16.5	12,812	17.4
5	의류·동부속품	1,985	-4.1	-28.8	2,271	9.5	14.4	15,371	6.0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별로는 모두 수입이 전월보다 증가한 가운데, ASEAN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16.3%로 가장 크고, 이어 호주, 중국, 미국, EU, 한국 순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0.3% 증가

- 한편, 2015년 상반기 수입은 39조 5,330억 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감소

- 품목별로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여타 품목은 수입이 증가

- 주요 지역·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여타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 2015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엔, %) >

순위	국가	2015.5월			2015.6월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4,423	1.5	-9.7	15,720	6.9	9.0	94,318	1.9
2	ASEAN	8,572	-10.0	-11.4	9,966	5.2	16.3	60,654	-0.7
3	미국	6,824	11.5	-4.4	7,237	14.9	6.1	41,277	12.1
4	EU	6,611	1.1	-2.0	6,963	6.5	5.3	40,442	-0.7
5	호주	3,021	-22.9	-19.8	3,315	-18.2	9.7	22,123	-11.8
8	한국	2,785	-0.7	-3.5	2,792	-0.8	0.3	16,814	-4.3

자료 : 일본 재무성

### 3.엔저 · 고주가 · 고금리 지속

####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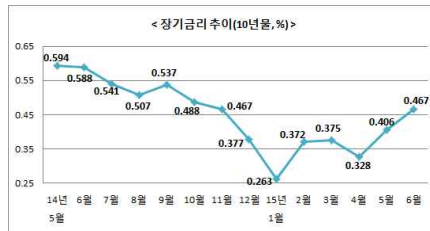
- '15.6월 평균 주가는 엔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2.2% 상승한 20,404엔
- 그리스 정세의 불투명, 중국주가의 하락 영향 등으로 하락했으나, 그리스 정세의 진전 등에 따른 해외주가 상승의 반발로 상승세를 회복, 7월23일 기준 20,842엔

#### □ (금 리)

- '15.6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해외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14.6% 상승한 0.47%
- 7월에는 2일 0.52%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 7월 21일 기준으로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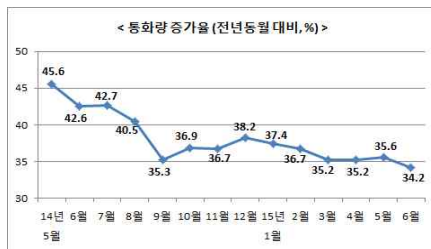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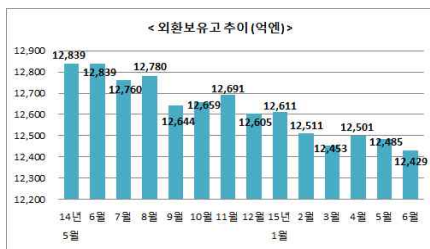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 (통화량)

- '15.6월 본원통화(머니터리베이스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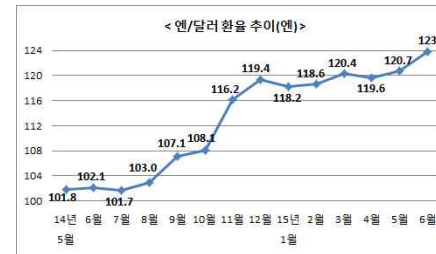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재무성

#### □ (환 율)

- '15.6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보다 2.6% 상승한 123.8엔(엔저)
- 7월 들어서는 그리스 정세의 불투명 등에 따른 엔화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121엔 대까지 엔저가 후퇴했으나 그리스 정세의 진전 등으로 다시 엔저가 가속, 7월22일 기준 124.3엔
- 당분간은 미·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 그러나 현재 시장 환율은 구매력평가(2015년 2월말 기업물가지수 기준, 달러당 약 100엔)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구매력평가로의 회귀·조정 가능성이 큼
- '15.6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899원으로 전월의 905원에 비하여 0.7%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 4.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유지

##### □ (동향) 대양주와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 급증

- '15년 5월 해외직접투자액은 2조 757억 엔으로 전월비 107.1%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엔, %) >

		2013	2014	2014	2015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금 액		131,946	125,929	13,570	11,901	13,833	9,244	10,023	20,757
증가율	전기비	34.9	-4.6	-6.7	-12.3	16.2	-33.2	8.4	107.1
	전년동기비	34.9	-4.6	-22.2	-5.6	113.3	28.2	-51.3	177.1

자료 : 일본 재무성

##### □ (지역별) 대양주, 북미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 對 유럽 투자는 감소

- 대양주 및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각각 전월비 857.9%, 73.7% 증가  
\* 한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
-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감소

< 일본의 주요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엔, %) >

	2014년		2015.4월		2015.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25,939	-4.6	10,023	8.4	-51.3	20,757	107.1	177.1	
아시아	37,617	-4.3	-1,098	-	-	6,797	-	329.9	
중 국	7,150	-19.3	1,287	33.5	204.3	781	-39.3	64.1	
한 국	3,328	3.7	140	-50.9	-24.7	93	-33.6	520.0	
북 미	46,264	1.2	1,440	-62.7	-90.3	2,440	69.4	22.6	
미 국	44,365	3.3	1,393	-63.4	-90.0	2,420	73.7	26.3	
중남미	7,710	-22.1	2,367	-59.6	83.8	1,851	-21.8	421.4	
유 럽	26,310	-16.7	6,310	443.9	270.9	3,140	-50.2	-2.6	
대양주	5,963	1.2	660	137.4	35.5	6,322	857.9	-	
중동	527	-	97	38.6	-	34	-65.0	-65.0	
아프리카	1,539	205.4	248	29.2	-31.9	173	-30.2	-38.7	

자료 : 일본 재무성

##### □ (특징)

- '15년 1분기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이 40%, 비제조업이 60% 차지  
\* 제조업은 화학·의약이 30.5%, 비제조업에서는 금융·보험이 52.8%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매수가 가속화, 상반기 중 매수총액이 전년동기비 60% 증가한 약 5조 6,000억 엔으로 6개월 단위로는 과거 최고수준  
- 특히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와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로 대형 M&A가 증가

#### III. 일본의 주요 정책

##### 1.TPA 법안 통과 후 미일 TPP 교섭

##### □ 쌀과 자동차 분야가 최대 쟁점

- TPA(무역촉진권한) 법안의 美의회 통과로 미일 TPP교섭이 큰 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국면을 맞고 있음
- 일본이 성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주식용 쌀은 미국이 연간 17만5천 톤의 무관세수입한도를 요구해온 반면, 일본은 5만 톤 정도가 한계라고 주장
- 한편, 일본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일본산 부품에 부과하는 2.5%의 관세철폐가 쟁점으로, 가능한 한 많은 부품을 즉시 관세철폐의 대상으로 하려는 일본에 대하여 미국은 철폐기간을 유예하려는 입장
  -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중, 전 품목의 50% 이상이 TPP발효 직후 철폐되고 잔존 품목들도 대부분이 10년 이내에 철폐될 전망
  -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련 부품 수출액은 2조엔 규모로, 2.5%의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 약 500억엔의 철폐효과를 예상
  - 한편, 자동차 본체에 대한 2.5% 관세는 TPP교섭 가운데 철폐기간이 가장 길어 철폐 시까지 최소한 10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0-30년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
- 미일 모두 좀처럼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 쌀과 자동차는 최종적으로 하나로 묶어 타협점을 모색하게 될 전망
  - 사무레벨에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인 조율을 한 다음 7월 말경 예정된 각료협에서 결정토록 할 공산이 큼
- 쌀 이외에 농산품은 거의 의견차가 좁혀져 최종 조정 단계에 있음
  - 미국산 쇠고기에 일본이 부과하고 있는 38.5%의 관세는 10년 이상에 걸쳐 10% 전후까지 인하할 방향

-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도 수입가격이 낮은 만큼 세액이 높아 킬로그램당 50엔 전후의 종량세로 전환
-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일본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S/G)도 발동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을 일본이 요구하고 있음

#### □ 미일 교섭의 새로운 쟁점

- 미일 TPP교섭에서 일본의 외국산 쌀을 둘러싸고 새로운 과제가 부상
  - 미국정부는 일본이 무관세 수입한도를 늘리기 위해 일본정부의 보증을 요구
  -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쌀 수입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역시 각료협의의 초점 사안이 되고 있음
- 미국이 일본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이 수입한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임
  - 일본의 소비자들은 일본산 쌀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다, 엔저로 미국산 쌀의 가격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음
  - 미국은 현재 일본의 최저수입량 제도에서도 태국과 같이 2대 쌀 수출국이나 TPP의 수입한도에 보증을 받아냄으로써 수출성과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도임
- 한편 쌀 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대규모의 쌀 수입을 보증하게 되면 그만큼 일본 국내 농가에 대한 타격이 크게 됨
  - 일본산 쌀과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미국산 쌀의 수입증가 여지는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일본의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수입한도를 대폭 올리고 보증을 하지 않는 편이 5만 톤의 정부보증을 해주는 것보다 영향이 적을지도 모름
- 7월 말 예정된 미일 각료협의에서는 수입한도의 규모와 보증의 유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
  - 미일 양 정부로서는 수입한도의 대소가 자국 국민에 대한 교섭의 성과로 나타나기 쉬운 반면, 보증의 유무는 실리로 직결되기 때문임

#### □ 미일 간 자유화율 95% 이상

- 관세철폐대상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미일 간에 95% 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까지 일본이 체결한 FTA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일본이 철폐하는 무역품목수는 약 9,000개에 이르는 전 품목의 95% 이상에 달할 전망
- 미국 측도 많은 자동차부품을 관세철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유화율은 미일 쌍방에서 95%를 상회할 전망
- 일본이 이제까지 체결한 2국간 FTA의 자유화율은 모두 90% 미만으로 쌀, 쇠고기·돼지고기, 보리, 설탕, 유제품 등 주요 5개 항목만으로 품목수가 약 600개에 이르며, 5개 항목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자유화율은 93.5%로 높아지기 때문임
- 일본은 5개 항목 중에서도 수입실적이 적은 품목 등을 철폐대상에 추가하여 자유화율을 높일 계획임

## 2. 경제·재정 재생계획

- 6월 30일 일본정부는 「2015년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각의 결정
- 일본정부는 2020년경부터는 인구감소·고령화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와 재정건전화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제와 재정의 일체개혁을 통한 경제재정 재생계획을 단행
- 구체적인 개혁안으로서, 디플레이션 탈출·경제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 등 3가지 개혁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

#### □ 디플레이션 탈출·경제재생

-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재생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인세 개혁, 규제개혁, 관민펀드 활용, 대일직접투자 촉진 등 성장전략을 가속화



## □ 세출개혁

- 국가, 지방, 민간이 일체가 되어 공적 서비스의 산업화(민간기업과의 협력), 인센티브 개혁(공공서비스의 양보다는 질 향상), 공공 서비스의 혁신(정보공시, 업무의 간소화, 선진국적인 추진방식 보급) 등

-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후발약(특허가 종료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이나 제제기술을 사용해 제조한 비교적 저렴한 의약품)의 이용촉진과 75세 이상의 장구부담 비율 인상 등을 검토

## □ 세입개혁

-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증대를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 설정
- 세계 면에서는 직접적인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개혁이 아니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하여 세수의 증대를 목표로 할 방침
  - 구체적으로는 성장지향의 법인세 개혁과 근로방식에 대한 중립성 확보를 지향한 개인 소득 과세의 재검토 등이 검토대상이 되고 있음

## □ 평가

- 일본정부의 2015년도 경제재정운영기본방침은 성장과 재정재건의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성장에 의한 세입증가와 사회보장지출을 중심으로 한 세출억제가 흑자화의 조건이나 양자 모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음
- 재정건전화 계획을 둘러싸고 세출억제를 중시하는 접근과 성장에 의한 세입증대를 중시하는 접근이 대립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경제재생 없이는 재정건전화도 없다는 기본방침을 정함
  - 세출억제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명기치 않음으로써 성장 중시의 색채를 짙게 드러냄
- 이상과 같은 개혁안은 과거에도 제시되었지만 실현될 수 없었던 과제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

##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 1. 대일 무역적자 3개월 만에 확대

#### □ (중 합)

- '15.6월 대일 무역적자는 1,778백만 달러로, 전월보다 612백만 달러 확대
  - 대일 수출은 감소한 반면 대일수입이 대폭 늘어난 데 기인
-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5%에서 5.0%로 저하된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9.7에서 10.7%로 상승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7.5%에서 7.2%로 저하

< 2015년 6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5.5월			2015.6월			2015.1-6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340	-13.5	-1.6	<b>2,234</b>	-12.8	<b>-4.6</b>	13,334	-17.6
대일 수입	3,505	-19.0	-17.9	<b>4,012</b>	-8.2	<b>14.5</b>	23,836	-11.1
무역 수지	-1,166	-456	-722	<b>-1,778</b>	-28	<b>612</b>	-112	-10,502

자료 : 한국무역통계

#### □ (대일 수출)

- '15.6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4.6% 감소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5. 5월	-13.5	<b>-1.6</b>	-10.9	<b>-8.4</b>	-8.7	<b>-9.1</b>
2015. 6월	-12.8	<b>-4.6</b>	-2.4	<b>10.3</b>	-2.9	<b>10.4</b>
2015.1-6월	-17.6	-	-5.1	-	-8.1	-

- 동 기간 중 총수출은 2.4% 감소에 그친 반면, 일본의 수입은 10.4%나 증가한 점 비추어, 대일 수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한 편
- 그러나 '15.6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산업용 전자제품과 광물성 연료, 금속광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 수출이 증가
- 산업용 전자제품의 감소폭이 -37.1%로 가장 큼
-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의 증가폭이 22.5%로 가장 크며, 이어 정밀화학제품과 농산물의 대일 수출증가율도 비교적 높음

< 2015년 6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5.5월			2015.6월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2,340	-13.5	-1.6	2,234	-12.8	-4.6	13,334	-17.6
1	광물성연료	383	-20.0	25.2	294	-31.5	-23.3	1,854	-42.8
2	철강제품	243	-28.8	-3.2	250	-26.7	2.9	1,510	-28.4
3	전자부품	187	-8.8	0.5	202	-0.5	8.0	1,158	-6.6
4	산업용전자제품	307	0.7	-6.1	193	15.7	-37.1	1,454	4.5
5	석유화학제품	120	-6.6	-6.2	147	-10.9	22.5	711	-9.7
6	정밀화학제품	119	-7.7	-1.7	142	11.3	19.3	716	-5.1
7	수송기계	95	-7.6	-4.0	103	-2.5	8.4	602	-6.4
8	농산물	77	-12.3	-18.9	89	-7.6	15.6	503	-8.3
9	금속광물	99	1.1	0	82	-7.4	-17.2	518	-2.2
10	기계요소공구·금형	78	-19.7	-8.2	81	-18.2	3.8	474	-15.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편, 2015년 상반기 중 대일 수출은 133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17.6% 감소
- 10대 대일수출 품목별로는 산업용전자제품만이 유일하게 대일 수출이 증가
-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 광물성 연료와 철강제품의 대일 수출이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

#### □ (대일 수입)

- '15.6월 대일 수입은 전월의 17.9% 감소에서 14.5% 증가로 크게 반전
- 이는 총수입증가율 1.8%를 크게 하회함으로써 대일수입의존도 상승으로 이어짐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5. 5월	-19.0	-17.9	-15.4	-4.4
2015. 6월	-8.2	14.5	-13.6	1.8
2015.1-6월	-11.1	-	-15.6	-

- '15.6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도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석유화학제품만이 유일하게 대일 수입이 감소
- 대일 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용 전자제품, 기초산업기계, 정밀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의 투자재 관련 품목들이 20% 이상의 높은 대일 수입증가율을 보여 국내투자의 회복세를 추측케 함
- 한편, 2015년 상반기 중 대일수입은 238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11.1% 감소
- 10대 대일수입 품목별로는 전자부품, 수송기계, 정밀기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철강제품의 감소폭이 -26.7%로 가장 큼

< 2015년 6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5.5월			2015.6월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3,505	-19.0	-17.9	4,012	-8.2	14.5	23,836	-11.1
1	철강제품	439	-38.4	-21.6	522	-22.2	18.9	3,105	-26.7
2	전자부품	431	-8.4	-20.3	469	-3.7	8.8	2,966	0.7
3	석유화학제품	458	0.3	-3.8	418	-8.0	-8.7	2,584	-10.5
4	정밀화학제품	262	-21.5	-28.2	318	-10.4	21.4	1,932	-11.6
5	기초산업기계	241	-17.3	-10.4	300	6.0	24.5	1,569	-12.3
6	산업용전자제품	185	-18.9	-29.7	231	-17.9	24.9	1,318	-13.2
7	수송기계	211	-2.3	5.5	220	8.9	4.3	1,263	2.5
8	정밀기계	156	-31.0	7.3	193	-0.8	23.7	1,488	12.2
9	플라스틱제품	186	-22.9	-11.0	193	-17.6	3.8	1,191	-17.2
10	산업기계	158	-23.9	-19.8	188	-10.3	19.0	1,042	-1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 일본인 직접투자 급증 반전

### □ (동향) '15.2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대폭 증가로 반전

- '15.2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684백만 달러로 전기비 136.7% 증가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 49.5%를 크게 상회
  - 건수로는 전기비 0.2% 감소
  - 전분기 급감에 따른 반작용과 건당 투자규모 확대의 영향도 증가 반전에 기여
- '15.상반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973백만 달러로 전기비 27.3% 감소
  - 건수로는 2.9%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3년		2014		2014.4분기		2015년.1분기		2015.2분기		2015.1-2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352 (21.3)	2,488 (-7.5)	103 (45.1)	850 (73.8)	85 (-17.5)	289 (-66.0)	84 (-0.2)	684 (136.7)	169 (-2.9)	973 (-27.3)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2,463 (-5.6)	19,003 (30.6)	746 (32.5)	4,185 (-6.7)	558 (-25.2)	3,555 (-15.1)	742 (33.0)	5,316 (49.5)	1,300 (-0.7)	8,871 (2.3)

주 :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 (한·일 기업간 협력 사례)

-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의 합작 및 협업
  -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획득한 태국의 면세점에 일본의 롯데홀딩스가 공동 투자를 진행할 계획, 출자비율은 한국롯데 80%, 일본롯데 20%(2015.7.23. 닛케이)
  - 제과 사업에서도 태국에서는 한국제품, 중국에서는 일본제품의 투입을 늘리는 식으로 상호보완, 협업을 확대할 예정

### □ (시사점)

-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에 대한 예의주시와 함께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
- 최근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도 대한투자의 플러스 요인

## V. 참고 자료

###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5.6월~2015.7월)

#### □ 국내 기관

- 『대일 통상활성화 방안』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7월2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487>
- 『아베노믹스의 성과 평가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년 7월 20일  
<http://keri.koreaexim.go.kr/>
-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산업연구원, 2015년 7월10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12&state=view&idx=51208&recom=1912&ord=0](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12&state=view&idx=51208&recom=1912&ord=0)
- 『[동향분석]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2015.7월)』 한국은행, 2015년 7월7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7997&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중국의 ASEAN 크로스보더 M&A 경쟁, 한국의 전략은?』 국제무역연구원, 2015년 7월1일  
<http://iit.kita.net/>
- 『부활하는 파나소닉, 성역 허물고 본업 바꿨다』 LG경제연구원, 2015년 6월29일  
<http://www.lgeri.com/management/strategy/article.asp?grouping=01020100&seq=295>
- 『일본재흥전략(2015년 개정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6월26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470>
- 『TPP 이후 한·일 對美 수출 전망』 KOTRA, 2015년 6월26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10M.html?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ARTICLE\\_SE=OM#nolink](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10M.html?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ARTICLE_SE=OM#nolink)

## □ 일본 기관

- 『거시경제모델에 의한 중장기 경제성장예측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경제산업성, 2015년 7월25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5fy/000555.pdf](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5fy/000555.pdf)
- 『일본 비제조업의 생산성 부진에 관한 고찰』 일본정책투자은행, 2015년 7월22일  
[http://www.dbj.jp/pdf/investigate/etc/pdf/book1507\\_01.pdf](http://www.dbj.jp/pdf/investigate/etc/pdf/book1507_01.pdf)
- 『통상백서 2015』 경제산업성, 2015년 7월4일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5/2015honbun\\_p/index.html](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5/2015honbun_p/index.html)
- 『경제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 일본 내각부, 2015년 6월30일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5/decision0630.html>
- 『제조업의 국내회귀 시리즈』 미즈호종합연구소, 2015년 6월29일  
<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jp150629.pdf>
- 『일본의 국제경쟁력』 일본종합연구소, 2015년 6월30일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focus/pdf/8254.pdf>
- 『제조업의 미래』 후지츠종합연구소, 2015년 6월27일  
<http://www.jkri.or.jp/PDF/2015/Rep139furukane.pdf>

## 2. 주요 경제 일정

### <7월 실적>

일자	주요 내용
6/30	• 경제재정운영기본방침, 성장전략2015, 규제개혁 등 각의결정
7/2	• 베트남총리 일본방문(4일까지)
4	• 日-베트남 정상회담(도쿄)
	• 日-메콩지역 국가정상회의(도쿄)
6	• 日-EU EPA 실무협상(브뤼셀)
	•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환경분과회(경산성)
8	• 원자력규제위원회
	• 5월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9	• 5월 기계수주통계 발표(내각부)
11	• 밀라노 세계박람회 재팬데이
13	• 아시아비즈니스서밋(도쿄)
	• 국립연구개발법인심의회 산업기술종합연구소부회(경산성)
	• RCEP 각료회의(쿠알라룸푸르)
14	• 그리스 엔포시 외채(사무라이채) 상황
15	• 구로다 일본은행총재 회견
	• 국립연구개발법인심의회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부회(경산성)
17	• 하우스텐보스에서 에너지절약·인력절감형 호텔「이상한 호텔」오픈(나가사키)
20	• 한중일 FTA 협상회의(24일까지, 베이징)
21	•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 일본방문(26일까지)
	• 도시바 회계부정문제에 대해 다나카 사장 기자회견
22	• 경제재정자문회의(총리실)
	• 원자력규제위원회
23	• 6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24	• TPP 수석교섭관회의(27일까지, 하와이)
27	• 안보 관련 법안 참의원에서 심의
28	• TPP 각료회의(31일까지, 하와이)
31	• 6월 통계발표(소비자물가지수, 완전실업률, 유효구인배율 등)

### <8월 예정>

일자	주요 내용
2	• 이탈리아 총리 일본방문, 日伊 정상회담(4일까지)
6	• 제10회 한일학생미래회의(10일까지, 부산)
10	• 샌다이원전 1호기 재가동 예정(가고시마)
24	• APEC2015 제3회 고급실무자회의 및 관련 회의(9/8까지, 필리핀)
27	• 제16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28일까지, 울산)